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종 윤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내 장학생 23명 선발

1993년도 하반기 장학생 23명을 장학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정하였다.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우리교회의 목표수행을 위해 선발된 장학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부: 고영우, 박상훈, 정성국, 권오철, 권재현, 최미현, 이성

철, 원지현, 이명진

고등부: 김수현, 장은경, 박성희, 서현진, 김태호

중등부: 서현아, 유혜진, 오재영, 고은혜, 주미영, 김경태, 신천규, 장은규, 김창수

이들의 장학금 수여식은 10월 10일 주일 찬양예배시에 있게 된다.

미국 윗튼대학 명예총장 내한

—한국 교회갱신 연구원에서 강의차—

미국의 기독교 명문 윗튼대학의 চে이스총장이 오는 20일 내한한다. 미국 기독교 대학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চে이스박사는 오는 25일 교회갱신연구원에서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론」을 강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신대에서 채플을 인도하고 숭실대교수 초청과담회, 한국동창회 및 교제지도자들을 보고 연세대를 방문한후 27일 출국케 된다.

한편 오는 18일의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마이클 윌킨스박사(미국 바울라 대학교수)의 「개교회에서의 제자양육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다.

피택 장로 고시 임박

우리교회 피택장로 7분의 장로 고시 일자가 임박해 본인들은 물론 온 교회의 기도지원이 요청된다.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소망교회당에서 강남노회 고시부에 의해 시행될 이번 시험을

위해 지난 6개월간 매주 금요일마다 당회 지도하에 학습과정을 마친 이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서울교회 시무장로로 봉사할날을 기다리고 있다.

강남노회에 장로5명 총대로 파송

우리교회는 제13회 강남노회 총대로 5명의 장로를 파송기로 당회가 결의하였고 1년간 봉사한 다

섯분의 장로와 교체멤버로 파송될 장로는 이영세, 노문환, 유운진, 김태기, 정병부 장로이다.

이종운목사 저서가 잘 읽힌다.

필그림 출판사에서는 이종운목사의 저서 에베소서 3판과 빌립보서 3판 그리고 크리스찬 신앙곡선 4판을 이달초에 각각 출판했다. 또한 엠마오 출판사에서는 이목사의 교회성장론 4판을 그리고 요한복음(I) 2판을 내었다. 이목사의 신약개론 3판을 개혁주의 신

행협회가 출판했으며 「예수의 비유」와 「예수의 기적」도 각각 4판 인쇄에 들어갔다.

이와같이 이목사의 저서가 잘 읽혀지는 이유에 대해 서점가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한다.

운동장에 가셔도 전도한다

—15개 시·도 초청 베드민턴 대회장에서—

오는 10월 23일(토) 오전 8시부터 생활체육 제3회 전국베드민턴 대회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된다. 이날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박철훈장로)는 70인 전도대원들과 함께 본 대회 대회장 송석인회장(5교구)의 초청으로 대회장에서 특별 전도활동을 펴게된다. 비전2000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복음증거의 기회로 알고 적극 참여기로 했다.

70인 전도대 발대식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는 비전 2000운동의 핵이되는 70인 전도대 발대식을 지난 10월 9일(토) 오후 3시에 갖고 이어서 노방전도에 들어갔다.

모세·한나 전도회와 함께

우리교회 모세·한나 전도회는 권사회와 더불어 가을 소풍에 나선다. 충남 영동에 위치한 금강변 송호 수련장으로 오는 10월 14일 1박2일간 특별 소풍을 가게된다. 이번 행사는 이남호 모세 선교회 회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이종운 목사는 대구지역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한다. 대구 실천신학회 주최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구 남산교회당에서 열린다.



* 한남기독교실업인회 초청 전도만찬회가 오는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이종운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창세기강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3:1)



이종운 목사

에덴동산의 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주의 모든 것에 질서가 생겼고 조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탄이 침범함으로 인하여 질서가 깨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 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 질서를 깨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뱀은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 12:9를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의 줄병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육신적인 질병과 모든 영적인 질병을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상상의 산물이나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인격을 가진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옛날이나 현재나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우리를 침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사탄의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이원론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탄은 어디서 생겨진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사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전에 벌써 사탄이 먼저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끌어내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교만을 넣어 주는 것이 사탄의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같은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앉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우리앞에 분명히 인격체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2. 사탄의 정체

(1) 교만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겔28:2)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신이 아니어늘”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부리는 것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에스겔28:12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탄은 가장 지혜가 많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한 온전히 아름답다고도 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마구 사용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는 마귀, 사탄의 줄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28장에 나와있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도 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탄의 불의가 드러났도다”(겔28:15)

또 이사야14:12~15를 보면 아침의 이슬 계명성이 하나님앞에 범죄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계명성(Lucifer)이 가장 높은 구름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무서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하노라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2) 자기 중심적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I will)라는 말이 에스겔28:13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라는 말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시고 한편으로는 희생하는 할 알의 밀알이 되라고 그러셨으니 이처럼 아슬배 반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앞에서 가야 하는 길이며 성도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무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받으면 안되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자주 충동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충동하기 위해서 뱀이 쓰던 수법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그런 수법을 쓰고 몇번은 성공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결국 망하는 것으로 끝났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 밖에는 없었습니다. 타락한 사탄으로 인하여 지금 인류사회는 사람 수가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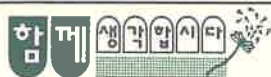
어나는 만큼 자기 뜻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 다툼, 분열, 아픔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의 초점을 맞추고 그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늘 반역하고 적대행위를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인간들에게 조화와 질서를 주실 수 있으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지금도 쉬지 않고 덤벼드는 데 정신 못차리고 있으면 언제 시험에 빠질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늘 조심하고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계락이 뛰어나서 지혜가 충족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자주 끌어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25:41) 마귀 꾀임에 끌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를 가장하고 오기도 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의 말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을 잘이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넉넉한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실향민의 부러움

며칠전 칠순의 실향민을 만나 여러가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단신으로 월남하여 천신만고의 역경을 딛고 지금은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본인에 본인은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몇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나이에 조금이라도 더 고향 가까이에 가고 싶어서 춘천에 사신다는 그분은 귀성길에 쏟아지는 차량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러워 하였다. 가야할 곳이 있고 갈 수 있으니 교통체증쯤은 오히려 즐거운 것이 아니냐며 갈 수 없는 고향을 원망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한 것은 정치도 경제도 군사력도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 우리의 여리고성, 이 민족의 여리고성인 휴전선은 그토록 어렵게 진행중인 남북회담으로 제거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견해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비전 2000운동을 전개하고 우리는 민족통일을 위해서 큰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니엘처럼 일사의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한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방위를 위한 국력 소모를 막아 복지사회를 만드는 길은 강함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의 땅끝인 북녘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탄의 실체”

10월 3일(주일) 중등부와 고등부는 Vision 2000운동의 일환으로 연합특강을 실시하였다. 낮은 울타리 발행인인 신상연 집사를 초빙하여 이루어진 이번 특강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교사와 학생도 관심있는 교인 약3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뉴에이지 운동에 관해서는 일전에 이종윤목사님의 강의내용이 순례자에 연재된바 있어 더욱 관심이 있었다.

강의는 주로 근래 인기있는 연예인들의 옷차림, 치장물에 대한 설명과 유라기공원, ET등을 제작한 스티븐비그 감독의 의도, 스트리트 파이터와 같은 컴퓨터 오락 및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addin 등 월트 디즈니의 영화, 오즈

오스본, 킨 등 Rock음악가 등의 음악성과 그속에 깃든 사탄의 요소를 실랄하게 파헤침으로써 학생들을 경각하게 하였다.

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흔히 쓰는 목걸이, Sign 등도 실물과 함께 소개되었고, 따라서 앵크십자가, 나뭇의 별, 피라밋과 역삼각형, 빨달린 염소상징, Roman Cross 등 악세사리와 상징물을 앞으로써 사탄 추종자들이 누구인지 판단이 가능하게 되어 뉴에이지 목걸이를 하고 교회로 나오는 무지함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었다.

뉴에이지운동이나, Rock음악은 그들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사랑을 비탄에 빠지게하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한다고 한다.

피택자로 7인과의 만남(Ⅱ)

김대호 집사



생업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다루기 장로로 세움을 받아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앞에 오직 감사할 뿐이며 인간적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는 11월 28일 교회설립 2주년을 맞아 장로로 장립되는 피택장로 김대호 집사님의 첫마디다.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대호 집사는 부인 남순덕 집사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부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

남순덕 집사님은 김대호 집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신앙면에서나 또는 가정적으로도 오직 순종하는 미덕으로 김대호 집사님을 내조하였고 장로로 피택된 후로는 계속적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김대호 집사님은 7교구 교구장으로서 현재 새가족부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더불어 건축위원과 재정위원 등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땀방에도 여건이 허락되면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

집사님 역시 우리교회의 당면한 과제를 건축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앞서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조화롭게 교회가 성장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집사님은 현재 우리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비전2000운동에 모든 성도가 열심히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집사님 자신도 2명을 태신자로 놓고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한다.

집사님은 장로로서의 소정 교육을 받으며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장로의 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친형님과 같은 장로라고 대답하셨다. 형님은 현재 영락교회에 시무 장로로 계시는데 평소에도 생업보다 교회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언행심사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데 자신도 그와 같은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신다.

늘 웃음이 가득한 김대호 집사님, 진정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로가 되실 것을 온 교회가 기대해 본다.

이번 강의로 한창 대중문화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사탄 추종자들의 추구하는바를 알려 구별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바를 배울 수 있었다.

음악, 영화, 비디오, 오락, 게임 등에 무한정 쏟아져 들어오는 소프트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행할바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뉴에이지운동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며 문화

직으로 발생하는 영적인 문제에 무지함으로 인해 속수무책인 기존의 신앙인들이 새로운 세대의 어린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잘 인도 하기위해 더많은 공부와 필요할 것이다.



순례자칼럼

무엇이 지름길인가?

임진태 목사

확실히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진 것만은 틀림없다. 식사를 할 때 보면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가 하는 문제를 종종 거론하게 된다. 아체를 많이 먹는 것이 고기 먹는 것보다 좋다는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끼 먹기도 힘들어 하던 시기에 건강과 반찬에 관한 이야기는 사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새벽에 남부 순환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에 물통을 지고 우면산을 향하여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수도 얻으며 건강을 위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종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횡단보도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거리를 걷기가 귀찮아서 도로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때 사고가 발생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을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운동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사람은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잠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름길은 조금 더 걸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경우를 체험할 수 있다. 목적이 좋고 우리의 맘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전력 투구한다해도 지름길을 잘못 착각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시간을 좀더 단축 시키려고 하다가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일생을 실패로 마감하게 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성경의 역사는 한결같이 목적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며 이 과정은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매우 바쁜 것처럼 보인다. 할수만 있으면 빨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불행히도 이런 조류는 그리스도인들 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훈련과 맘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싫어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한다. 맘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목적 달성 하려는 것은 도둑 심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여 걷는 이 길이 혹시 나의 생명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가?

신종명 집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우리교회는 지난 9월 29일(수) 송식을 가졌다. 이목사님은 공개 일 수요일 Ⅱ부 예배후 신종명 집사 적으로 파송식을 갖지 못함을 애를 제1호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 식해 하면서 신집사님의 사역을 는 파송식을 가졌다. 위하여 권면의 말씀과 기도를 하

이날에는 이종윤목사와 부교역 면서 복음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자들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해줄 것을 당부하고 교회는 함께이종윤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파 기도하며 도울것을 약속하였다.

예배위원회 친목 모임가져

지난 10월 9일 예배위원회(위원장 오정수장로)는 가장 은혜롭게 드리기 위한 특별 친목모임을 가졌다. 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긴급한 예

초대합니다.

천사도 홍보하는 찬양대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6개 찬양대에 서는 대원 및 피아니스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몸되신 교회를 통해 개발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찬양대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국 또는 각부 찬양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목사 방송 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성경교실)

극동방송(HLKX 1188KHz) 금요일 오전 9시 ~ 30분 (나의갈길 나가도록)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 오전8시 ~ 30분(주일설교), 화요일 오전 4시10분 ~ 50분(재방송)

● 금주의 목회자 세미나 안내 ●

제 1 교 시 14:00-15:30(90분)	일시	제 2 교 시 15:50-17:20(90분)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11 일	순양원의 목회와 경건 이 만 열 교수 •숙명여대
이 종 윤 목사 •서울장로교회 •Ph. D., Univ. of St. Andrews.(영국)	18 일	길선주의 생애와 설교 김 인 수 교수 •장신대

■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 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믿음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영적비전의 사람아!
열정적인 기도와 전도로 잃은 양들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 목회자 세미나에 은혜스러운 진행을 위하여
- 비전 2000운동이 계획적으로 순조롭게 전개되도록